

모래·바람·명상...치유의 고창갯벌

갯벌 특화 해양치유프로그램 성료 치유밥상·바다향기 체험 등 다채 참가자들 오감 통한 심신 치유 호평

고창군이 마련한 '갯벌 특화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고창갯벌 일원에서 4차례에 다양한 체험행사로 진행하고 마무리 됐다.

'해양치유'는 바다의 모래·바람·소리, 갯벌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다.

지난 9월8일 열린 첫 프로그램은 서해안 고운 모래를 활용한 '샌드아트 치유 워크숍' 진행됐다. 고창 바다의 새 이야기 공연과 직접 손으로 느껴보는 나만의 모래 드로잉이 진행됐고, 이후 갯벌로 이동해 모래갯벌을 발로 느껴봤다.

2주차 '바다채소 치유 워크숍'은 싱싱볼 소리와 함께 무거웠던 몸과 마음은 명상을 통해 가볍게 되었다.

바다채소를 활용한 치유밥상을 즐긴 후 해풍을 맞으며 함초커피로 바다가 주는 안온함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채웠다.

후각을 깨우기 위한 '바다향기 체험'은 바다가 연상되는 향으로 배합해 만든 다양한 에센셜 오일을 맡아보고 향기노트를 작성했다. 나만의 에센셜 오일을 만든 후 아로마 호흡 명상을 통해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지난 3일 '갯벌 숲 소호 차담회'에선 갯벌 걸 소나무 숲에서 차를 우려 마시며 고창 바다의 바람과 소나무 내음을 맡았다.



고창군 '갯벌 특화형 해양치유 프로그램' 중 바다채소 치유 워크숍 장면.. <고창군 제공>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참가자는 "스스로와 대화를 많이 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일상 생활 속에서 바쁘게 생활하다가 프로그램 체험으로 마음에 치유도 받고 행복하고 좋았다"는 등 다양한 후기를 남겼다.

방준혁 고창군 해양수산과장은 "회차별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해양치유 프로그램들을 많은

방문객들이 직접 경험해보면서 고창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2022년부터 대죽도 해양치유 캠프, 해양·내륙치유, 해양치유 힐링체험 등의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4800여명이 체험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내년 지방채 195억 발행

김치원료 공급 플랫폼 조성 등 4대 사업 재원 마련

고창군이 세수 부족 여파와 대규모 국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국도비 매칭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한다.

고창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고창군이 제출한 '2025년 고창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앞서 고창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불확실성, 이전 재원인 보통교부세 2023년도 정산분 반영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2025년)에 19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내용의 '고창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고창군 지방채 발행 목적사업은 4개 사업에 총사

업비는 2224억원으로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 플랫폼 조성 사업(75억 9000만원) ▲노을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49억원)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14억 4000만원)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기반조성사업(55억 7000만원)으로 지방채는 총 195억원이다. 이는 202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415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고창군 지방채는 정부기금과 지방기금, 금융기관 등을 통해 연 3.0~5.3% 이율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용자 및 차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창군은 민선 7기인 지난 2021년 약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형질변경 토지 '지목현실화' 추진

1962년 산림법 시행 전 준공 건축물, 별도 절차 없이 지목 변경

정읍시가 오는 2026년까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목현실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1962년 1월19일부터 주택이나 창고 등이 건축된 산지(임야)에 대해 지목을 대지나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지(임야)는 산지법 시행 이후 형질변경을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산림법에서 규정하는 산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시는 1962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별도의 산지전용 절차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행정자료와 1966년부터 2023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을 활용해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목현실화가 가능한 토지를 확인한 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상담과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방식의 한계를 넘어 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혁신적 행정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줄이어 '훈훈'

시립요양병원·생활개선연합회 등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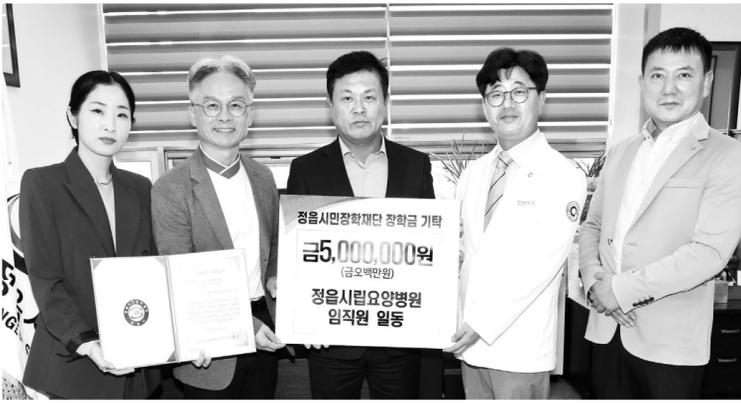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시립요양병원 임직원들은 최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시민장학재단에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고재일 병원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해 임직원들이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한국생활개선정읍시연합회(회장 박정옥)도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정옥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생활개선정읍시연합회는 탄소중립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영농폐기물 수거로 발생한 수수료 일부를 기탁하고 있으며, 이 활동은 올해로 4년



정읍시립요양병원 임직원들이 지난 4일 정읍시를 방문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시민장학재단에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정읍시 제공>

째 이어지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소중한 마음을 담아 기탁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며 "학생들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초등학교 500m 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남원시 조례 제정...CCTV 설치·순찰 강화 등 보호체계 구축

남원시는 아동 보호 및 복지 보장을 위해 '아동 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시공원 등 유사 시설 반경 500m 내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CCTV 설치 및 순찰 강화, 효율적 아동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포

함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남원경찰서와 간담회를 갖고 아동 보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아동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원장 공모

남원시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의 원장을 공개모집한다.

남원시는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수장으로 연구와 경영을 총괄하면서 남원의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연구원장을 오는 28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업무는 ▲남원 바이오산업 질적 향상 및 바

이오산업 미래 계획 수립·추진 ▲남원 바이오산업 전환에 따른 미래 전략 산업 추진 전략 구체화 ▲국내외 바이오 기관과의 협력망 구축 ▲국내외 기업 협력으로 공동연구, 제품 개발 등이다.

응시 자격과 초빙조건을 비롯한 채용사항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또는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